

한솔홈데코, 바이오매스 전력 생산

폐목재 · 톱밥 · 분진을 원료로 ... 2014년까지 태양광발전 신설 예정

한솔홈데코(대표 고명호)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획득했다.

REC는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인증은 많았으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채용해 REC를 받은 것은 한솔홈데코가 국내 최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솔홈데코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RPF(Refuse Plastic Fuel) 설비로 36만톤의 스팀을 제조해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 부산물인 폐목재나 톱밥, 분진 등 100% 바이오매스를 재활용해 1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7월부터 1만5000REC를 판매해 약 32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명호 대표는 “그린 및 리사이클 분야 로드맵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열병합발전설비를 추가 증설할 예정이며 바이오매스 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 설비까지 신설해 추가 수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7>